

대학원생 논문 발표 _ 1분과 교육1-3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 그림책으로 바라보기

박현경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과정수료),
 김현경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과정수료),
 연혜민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과정수료)

I. 서론

모든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아정체성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성(性)이다(Egan & Perry, 2001). 아동은 6-7세 정도가 되면 자신의 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성향구성을 얻게 되고(Slaby & Frey, 1975), 10세쯤 되면 성 지향성이 확립된다(McClintock & Herdt, 1996). 아동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기본적인 특질에 대한 자기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성에 맞는 성격, 관심, 기호, 행동 등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생물학적인 성(sex)이 출발점이기는 하나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학습되어 인지되게 된다.

1960년대 북미와 서유럽에서 시작된 일명 ‘성혁명’이 일어난 후 성에 대한 가치관은 급격히 변화되었다(Grenz, 1990). 성적 규범과 행동의 변화는 동성애에 대한 관용, 혼전 혼외성교의 증가 등 성규범이 급격히 완화되었고, 성-사랑-결혼의 연속성을 와해시키며 연애는 성적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의 권리이자 의무로 자리잡게 되었다. 최근에는 성의 상업화에 의한 자극적인 성정보가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 불필요하고 유해한 성적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는 아동은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또래에게 왜곡된 성행위를 모방하게 하거나 성범죄로 이어지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매일경제, 2012). 세속화된 성개념으로 각종 성문제가 야기되는 현대에 과연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며, 남성과 여성이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성 지식을 기반으로 성개념, 성가치, 성도덕 형성을 위한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상호보완작용을 하면서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고유한 도서장르로 (현은자, 강은진, 변윤희, 심향분, 2004) 성교육의 효과적인 교수매체로서 활용되고 있다(교육부, 1999; 김지영, 2004; 김현실, 2010; 손선옥, 2002; 신은영 2009). 성교육으로의 접근이 용의하고, 교사나 학부모들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이다. 그림책의 시각언어는 성과 폭력과 같이 터부시되는 주제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간의 체험을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는 과학적인 설명과는 다른 방식으로 실제의 본질을 파악하도록 도와준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이웃인가’란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눅 10:29-37)의 ‘이야기’를 사용함으로써 이웃의 본질에 대해 사색하게 하고, 지향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들려주셨다(Ryken, 1985). 이는 인간은 이야기를 하려는 본능이 있고, 이야기를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있는 특성에서 기인한다(Niels, 1999).

인간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는 남자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고, 남녀의 차이는 서로에 대한 배제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 현대의 왜곡된 성가치는 성을 하나의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살아감의 체험을 들려줌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해주며, 성교육의 매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림책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여러 측면들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세계관으로 조명하여 보고자 한다. 그림책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왜곡된 성가치를 전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남성과 여성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동체로 창조된 모습에 대해 조망한 후성과 관련된 여섯 가지 성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남성과 여성

1)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기독교 인간론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선언은 인간의 정체성과 본성의 핵심이 되는 주장이지만 그 의미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다. 대부분의 정통적인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정신구조, 이성, 인격 혹은 도덕적 자각 등의 내면적인 특질로 보고 있다 (Baker, 1991). 이는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 오래참음, 자비, 온유와 같은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창조기사를 다루는 책 중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바르트 무이아르트 글, 볼프 에를브루흐 그림, 마루별)가 있다. 창조기사를 그대로 재화한 이야기이기보다 색다른 상상을 덧입은 책으로 창조의 과정을 지켜보는 주인공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창조를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비판하고, 따지며 투덜거리는 '나'라는 주인공을 대하는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을 즐기며 좋아하고, 그것들을 향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인공의 억지나 비난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질문에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해주신다. 어떠한 강한 힘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지만 결코 약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본성의 근원이며 그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인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관계인 형상이다. 이 형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원을 따라 인간 안에 자유, 책임, 그리고 응답능력을 주신 것으로 일종의 ‘동반자됨’ 혹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으로까지 확대된다(Baker, 1991)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졌던 많은 인물들의 모습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책이 많지 않은 가운데 그 친밀함을 보여주는 그림책이 있다.



[그림 1] 모세: 세상을 바꾼 용감한 여성 해리엇 터브먼

『모세: 세상을 바꾼 용감한 여성 해리엇 터브먼』(케릴 보스턴 워터포드 글, 카디르 벨슨 그림, 달리)에는 흑인 노예 해방 운동에 큰 공을 세운 실존인물 해리엇 터브먼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터브먼은 농장의 주인이 자신을 자기 것으로 하며 노새처럼 부리는 것에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이후 복부로 탈출하기로 한다. 남부농장에서 탈출하는 과정이나 지하철도의 안내자로 노예해방을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이 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노예들을 탈출시켰던 해리엇 터브먼은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켰던 모세와 같다. 다만 해리엇은 모세와 달리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데 ‘여자’라는 사실로 인해 어떤 불편함이나 모자람도 없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배권을 가진 청지기로서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조세계와 관련된 특별한 과제 즉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자들로서 섬길 과제를 맡기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피조세계에 반사하는 거울로서 봉사하는 방향으로 피조세계를 관리해야 한다(Grenz, 1994) 청지기로서의 삶은 실존의 인물의 삶을 다루는 그림책 또는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의 요청을 뿌리치고 나이지리아 국제 열대농업 연구소에서 품종개량과 면충의 천적 기생충을 발견한 한상기 박사의 삶을 전해주는 『까만 나라 노란 추장』(강무홍 글, 한수임 그림, 웅진주니어)이나, 세상을 여행하는 꿈과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미스 럽피우스』(바바러 쿠니 글, 그림, 시공주니어)와 같은 책들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부여된 인간본성의 근원이다. 남자나 여자 모두 하나님의 내적특질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청지기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 것이다.

2)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인간

학교교육과정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주제는 양성 평등과 양성성을 조화롭게 갖추는 것으로 주로 다루어진다. 성경적으로 ‘남자와 여자’에 접근할 때에도 양성 평등과 남성다움, 여성다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려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셨으며,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는 지에서부터 논의가 출발되어야 한다(Stott, 1999).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창세기 1:27)하셨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있으며, 동등한 정체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의미를 분리하여 찾아내고 목록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남성적 혹은 여성적 은유를 사용하지만(Jewett & Shuster, 1991:44, Volf, 1996:268에서 재인용), 하나님에

관한 언어가 지닌 구체적으로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내용은 다 오로지 피조물의 영역에서 유래한 것이며, 하나님은 성정체성의 모범은 아니시기 때문이다(Volf, 1996:269).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구절을 통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성적 구별을 초월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품에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림 2] 세상에서 가장 힘센 수탉

대체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은 각 문화와 연령에 따라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다.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이호백 글, 이억배 그림, 재미마주)은 전통적인 남성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수탉은 젊은 시절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으로 활약하며 명성을 누렸지만, 어느 날 더 힘이 센 수탉이 나타나자 세상에서 제일 술 잘 마시는 수탉으로 전락하게 된다(그림 2). 이 수탉으로 하여금 절망감에 빠지게 만든 것은 수탉이란 모름지기 힘이 세어야 한다는 남성다움에 대한 전제 때문일 것이다. 수탉의 삶의 의미와 이유, 목적은 힘이 센 것에 있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좌절되자 수탉은 더 이상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때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비단 힘이 센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많은 남성다움의 조건들이 수탉의 정체성과는 동떨어진 채, 사회문화적으로 강요된 것이기에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힘이 센 것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 남성으로서 또 사람으로서 존엄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존엄성은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갖춤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정체성과 존엄성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염 할아버지』(이상교 글, 한성옥 그림, 보림)의 주인공 할아버지는 전통적인 이미지의 남성다움보다는 다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학교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다가 붓을 페인트통에 빠뜨렸을 때에는 여러 아이들의 도움도 받을 줄 알고, 자신의 수염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그림을 그려나갈 줄 안다. 또한 할아버지는 생일 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단장을 할 때 수염으로 리본을 만들어 딸 줄 아는 멋과 섬세함을 지녔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어느 날 할아버지가 거센 바람에 등지를 잃고 헤매는 아기 새들을 발견한 부분이다. 고민 끝에 할아버지는 하얀 수염을 등지 삼아 아기 새들을 보듬어 안았지만 날은 저물고 어미 새는 거칠게 할아버지를 공격한다.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서 할아버지는 수염을 잘라 기꺼이 아기 새의 등지를 만들어 주고 떠난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아끼는 수염을 기꺼이 포기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을 사랑하고 돌봄으로써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준다. 게다가 집에 돌아와서도 할아버지는 수염을 잃은 상실감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수염은 또 나게 되어 있다며 어느 날과 다름없이

평안하게 잠이 든다.

그림책 속에서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답게 만들어주었던 것은, 할아버지의 멋진 수염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할아버지의 성품이었던 것이다. 수염 할아버지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에서 요구하는 전통적인 남성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남자와 여자가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어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즉, 남성이라는 정체성과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구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성 차이를 삭제하거나 두 성을 종합하여서 증성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전서 11장 11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는 성 차이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성 차이를 긍정하는 동시에 하나의 성 정체성을 언제나 다른 성 정체성의 내부에 위치시켜야 한다(Volf, 1996:295). 다시 말해, 남성과 여성의 평등함이 반드시 남성과 여성이 같아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등과 정체성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루비의 소원』(브리지스 글, 블랙울 그림, 비룡소)은 양성 평등을 이루면서 각 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예를 잘 보여준다. 루비는 부유하지만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라났다. 루비는 남자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공부할 수는 있었지만, 생활 속에서 면면히 드러나는 남녀 차별 관습에 슬퍼하며 한탄의 시를 쓴다. 루비의 시를 읽게 된 할아버지는 루비의 소원대로 남자아이처럼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며, 루비는 결국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루비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남자아이와 나란히 동등한 위치에 서기를 바랐다고 해서 루비가 여성성 자체를 부인하고 남성성에 흡수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빨간 색을 좋아해서 이름도 루비인 그녀는 할머니가 되어서도 매일 빨간 장신구를 달 정도로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도 당당히 지키고 가꾸어나갈 줄 안다.

3) 공동체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하신 일, 곧 사역을 도울 배필을 위해 짝을 지으셨으며, 남자와 여자를 함께 두심으로 서로 다른 성과의 평등과 상호 의존을 바라셨다. 특히,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은 여자가 갖는 모든 본질적인 면,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남자와 대등한 돕는 자’, 그의 곁에서 함께 지내며 함께 일하는 사람인 것을 의미한다(Leeuwen, 1990:47-49). 하나님은 두 성의 조화와 연합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함으로써 그분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사회적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동체로 창조된 사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위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본질상 사회적이시며, 창조주, 구속자, 성령이 성령의 드라마 전체에서 서로 협력하며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Leeuwen, 1990:45 ; Grenz, 1990).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은 관계가 아니라,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관계 속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Volf, 1996:284). 다마스쿠스의 요한은 “세 위격은 뒤섞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붙어 있기 위해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융합되거나 뒤섞이지 않은 채 서로 안에 자신의 존재를 둔다”고 말한다. 신적 위격들이 더불어 살아가시는 그런 교제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들이 서로 그리고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Volf, 1996:286).

이러한 삼위일체 위격 사이의 관계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내용이 사회적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가에 관한 모형이 될 수 있다(Volf, 1996:286). 삼위일체의 삶의 특징은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이며,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젠더에 의해 규정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위한 모범으로 삼을 수 있다(Volf, 1996:297). 즉, 남성과 여성은 자아를 상실하지 않으면서 자아를 내어줄 수 있으며, 불평등으로 전락하지 않고도 자아 안에 타자가 존재할 수 있다(Volf, 1996:283). 여기에서 자기를 내어준다는 것은, 첫째 자아에 몰두하기를 포기하고, 타자를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흠이 없게’ 만들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뜻하고, 둘째 타자를 위해 자아를 열어젖히고 타자가 자아 안에서 공간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Volf, 1996:299). 이처럼 하나님이 사회적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며,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Leeuwen, 1990:46).

그림책 『친구에게 주는 선물』(유미코 후쿠자와 글, 그림, 한림출판사)은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적인 연합을 잘 보여준다. 겨울을 앞두고 단짝 친구인 큰 곰과 겨울잠쥐는 함께 ‘겨울을 준비하는 가게’에 간다. 그들은 진열되어 있는 여러 물건들 중에서도 자신의 것이 아닌 친구에게 어울릴 조그마한 빨간 조끼와 커다란 스웨터를 각각 눈여겨본다. 우여곡절 끝에 도토리를 열심히 모은 큰 곰과 겨울잠쥐는 ‘겨울을 준비하는 가게’의 마지막 손님으로 각각 서로를 위한 선물을 산다. 산만한 덩치의 미련해 보이는 곰과 곰의 주먹보다도 작고 날렵한 겨울잠쥐는 외모와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을 실천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만 위계를 세우거나 역할을 제한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들의 관계가 바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의 연합, 진정한 사랑일 것이다.

2.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성문제

1) 성정체성, 성정체성 편견

우리는 종종 남성,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특정한 젠더, 성 정체성에 대한 모범이 아니라,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에 대한 모범이시다(Volf, 1996:271). ‘부성’과 ‘모성’, ‘여성성’과 ‘남성성’은 다 피조물의 영역에서 가져온 개념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엇도 구체적으로 여성적이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남성적이지 않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그 어떤 요소도 한쪽 성에 한정된 의무나 특권을 요구하지 않는다(Volf, 1996:273-274). 따라서 ‘성 정체성’의 개념은 종교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차이에 의해 형성되며(Johnson, E., 1993:155), 문화적 조건에 제한을 받으며 변화하는 것(Volf, 1996:271)임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남자든 여자든 동등하게 구원 받고, 성령을 받으며, 보내심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이 곧 남성과 여성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Leeuwen, 1990:40). 모든 차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Leeuwen, 1990:41). 남성성과 여성성의 내용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둘 사이의 경계도 흐릿할 수 있지만, 남성과 여성의 표지는 인간의 몸에 지을

수 없게 새겨져 있다. 그러므로 성 차이는 인간 실존의 빼앗을 수 없는 특징이다(Volf, 1996:289).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은 성으로 구별되는 그들의 몸이 지닌 구체성을 근거로 삼는다. 즉, 성으로 구별되는 몸은 성 정체성의 내용이 아니라 성 정체성의 근거가 된다(Volf, 1996:274). 성으로 구별되는 몸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내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Volf, 1996:276).

성 정체성이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되다 보니, 아이들은 종종 자신의 성 정체성을 타인의 목소리와 시선, 대중문화 등을 통해 찾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성 정체성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기 쉽다.



[그림 3] 고추가 작아요

『고추가 작아요』(티에리 르냉 글, 스테판 폴랭 그림, 문학수첩리틀북스)라는 그림책은 성장 과정에서 남자아이들이 한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문제를 다룬다. 주인공인 마르탱은 자기도 ‘다른 남자애들처럼 고추가 있으니까’ 남자로서의 정체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영장 탈의실에서 친구들이 마르탱의 별거벗은 몸을 보고 ‘고추가 콩알만 하다’고 놀리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마르탱은 자신의 고추가 작은 것에 대해 큰 고민에 빠지게 된다. 마르탱은 고추가 작으면 아기를 낳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고, 그렇다면 아기를 열 명쯤은 낳고 싶어 하는 아나이스의 마음에 들지 못할 것이라 걱정하게 된 것이다. 마르탱의 같은 반 친구들의 생각은 더욱 황당하다. 마르탱의 학급 남자 아이들은 다들 아나이스를 좋아하는데, 아나이스에게 잘 어울리는 남자 친구를 뽑기 위해 ‘오줌 멀리 싸기 시험’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시험 날까지 마르탱은 매일 밤 오줌 싸기 연습을 하고 의기충천하여 시험에 참가하지만 오줌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결국 다른 친구가 아나이스에게 고백을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아나이스는 오줌 멀리 싸기 시험에서 일등을 차지한 ‘유치한’ 아이가 아닌, 마르탱에게 다가가 사랑을 고백한다. 이 책은 사랑이 고추의 크기와 아무 상관도 없다는 말로 끝난다.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은 각자의 몸이 지닌 구체성을 근거로 하지만 몸의 일부에 대한 우열을 부여하는 것은 아이들이 건강한 성 정체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 그러나 오늘날 아이들을 둘러싼 대중문화 속에서는 성기의 크기를 비롯하여 키의 크기, 몸무게, 가슴의 크기, 쌍꺼풀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우월한 몸의 조건들이 세워지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이와 같은 암묵적인 조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옳아맨다.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존귀함과 존엄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멋진 남성이나 멋진 여성이 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손수 지으시고 나서 기뻐하셨다는 점과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다는 점에 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2) 성역할, 성역할 편견

역사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세기 2:19)는 성경 말씀은 곡해되어 여성의 존재가 마치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즉,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어진 존재로서 남자의 욕구를 채워주거나, 남자의 역할이 주된 것이라면(main), 여자의 역할은 남자를 뒷받침하는 조수의 역할인 것으로(sub)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남성성과 여성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관념이기에 남성이 해야 할 역할과 여성이 해야 할 역할이 따로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Volf, 1996). 남성과 여성은 각각 존재하지만, 그들의 성 정체성에는 아무런 ‘본질’도 없으며, 변하지 않는 ‘여성성’과 ‘남성성’ 같은 것도 없다(Volf, 1996:277). 우리는 성역할과 정체성의 ‘끊임없는 창조와 재창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Leeuwen, 1990:69).

그 대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창조 안에 내재된 가능성들을 ‘열어 보일’ 것을 명령하셨다. 인간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창지기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Leeuwen, 1990:47). 소위 ‘문화 명령’으로 잘 알려져 있는 창세기 말씀에 이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져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세기 1:28)는 말씀을 통해 남자와 여자는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남녀 모두에게 땅 위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남녀 모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으며, 남녀 모두에게 다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특히 바울이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라디아서 3:28)고 말하였던 것과 같이, 오순절 이후 교회 안에서도 남녀 사이의 장벽은 무너졌고, 유대인과 비유대인, 노예와 자유인 간의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 오순절 이후 여자들은 남자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성령이 주시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은사를 발휘할 새롭고 도전적인 영역들을 계속 찾아 나섰다(Leeuwen, 1990:38-39).

따라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구원 받았고, 평등하게 성령으로 충만하며, 평등하게 보내심을 입었다(Leeuwen, 1991:36)는 점을 바탕으로,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성역할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창지기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레이스는 놀라워』(메리 호프만 글, 캐롤라인 빈치 그림, 시공주니어)는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해 왔던 예를 잘 보여준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여자아이인 그레이스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언제나 연극으로 꾸미는 걸 좋아한다. 잔 다르크와 거미 아난시, 정글 소년 모글리 등 언제나 신나는 배역을 맡아 놀던 그레이스는 유치원에서 〈피터팬〉을 공연한다고 하자 피터팬 역을 맡겠다고 손을 높이 든다. 하지만 친구들은 피터팬이 남자이며 백인이라는 이유로 그레이스가 피터팬 역을 맡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레이스는 친구들의 말에 실망하지만, 엄마와 할머니의 응원으로 열심히 연극 연습을 하고, 친구들의 투표를 통해 당당히 피터팬 역을 맡아 연극을 성공적으로 이끈다. 이처럼 그레이스가 타인의 편견이 갖든 시선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져서 꿈꾸는 모든 것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레이스에게 용기를 주며 격려했던 가족들과 선생님이 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의 원제 “Amazing Grace”와 같이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한계를 지어주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마음껏 달란트를 펼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주신 은혜가 있기에 이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4] 올리버 버튼은 계집애래요

『올리버 버튼은 계집애래요』(토미 드 파올라 글, 그림, 문학과 지성사)와 『윌리엄의 인형』(샬롯 졸로토 글, 윌리엄 드 보아 그림, 다음세대)에는 전통적으로 여자아이들의 놀잇감이라 여겨져 온 것들을 좋아하는 남자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럭비나 축구보다는 종이 인형 놀이나 분장 놀이를 좋아했던 올리버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엄마의 말씀에 운동을 배우기로 결심한다. 올리버가 고른 운동 종목은 바로 탭댄스! 처음에는 올리버의 부모님도 운동 삼아 배우는 거라며 올리버에게 재차 다짐을 받지만, 점차 올리버가 성실하고 기쁘게 배우는 것을 보고 장기 자랑 대회에 나가는 올리버를 자랑스러워하게 된다. 올리버는 비록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지만, 계집애 같이라며 놀리던 올리버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이제 올리버를 여성적인 성향이 많은 아이로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멋지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올리버를 스타로 바라보게 된다.

한편, 윌리엄은 남자 아이지만 인형을 무척 갖고 싶어 한다. 윌리엄의 아빠는 그런 윌리엄을 못 마땅해 하며 농구나 기차놀이를 가르쳐 주고, 윌리엄 역시 그러한 놀이들도 제법 즐거워하지만,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여전히 인형을 갖고 노는 것이다. 이러한 윌리엄에게 할머니는 기꺼이 인형을 사주시면서 윌리엄의 아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윌리엄은 너처럼 아버지가 될 때를 위해서, 꼭 껴안아 주고, 흔들어 재워 주고, 공원으로 데려갈 인형이 필요해.”

윌리엄의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별에 따라 구분된 역할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성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성을 지어주셔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서로 다른 성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3) 성교육

성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치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선물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성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박신경, 2009:251).

성교육은 성이 신체의 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아의 총체를 내포하고 있으며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성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은 “총체성으로서의 인간 즉, 신체, 감정상의 모든 현상들, 정신 자유, 타인과의 관계, 책임의 의미, 그 미래상 등”(귀 뒤량, 박신경, 2009에서 재인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성교육은 단순히 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자기 발견과 그것에 대한 긍정,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배워야 할 점의 습득, 자립능력과 타인과의 교제능력의 증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방향을 부여할 가치의 모색”(귀 뒤량, 박신경, 2009에서 재인용)을 돕고 지원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박신경, 2009:254).

특히 유아기는 일생동안 성적 존재로서의 한 사람의 인격의 기반을 놓게 되는 결정적 시기(박신경, 2009:272)이기 때문에 유아기부터 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아기 성교육의 목표를 박신경(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첫째, 성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이를 통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표현됨을 인식하고, 둘째, 성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창조 사역에 동참하며 따라서 생명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과정임을 알고, 셋째, 남성과 여성을 지으심은 인간이 평등함과 서로 도움을 통해 연합(사랑)하기 위한 존재임을 깨닫고, 넷째, 생명에 대한 사랑과 돌봄의 책임성을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로 확장해 나가는 것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유아 연령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사랑하는 것을 넘어,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잘 돌볼 줄 아는 내용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내 몸은 나의 것』(린다 월부어드 지라드 글, 로드니 페이트 그림, 문학동네)은 세상에는 서로 존중해야 할 자기만의 것이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주인공 줄리는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가져갈 수 없고 다룰 수 없으며, 나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한다. 또한 보통 다른 사람들을 안는 건 기분 좋은 일이지만, 기분 나쁘게 느껴질 때에는 단호하게 싫다고 말하고 그만 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책은 내가 소중한 존재이니 나의 것도 역시 소중하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어서, 단순히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주제로 쓰여진 한국 그림책 『나는 나의 주인』(채인선 글, 안은진 그림, 토트북)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확장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나는 나의 주인이라고 표현된 부분인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나의 주인’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잘 다스리고 소중하게 보살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음으로 인하여 내가 존귀한 사람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더욱 부탁하신 ‘나’란 존재를 내가 사랑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에게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친구들의 몸과 마음도 존귀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을 위해서는 특별히 이차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몸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뿐만 아니라 성숙한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자세에 대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에 있어 이성교제를 하는 것과 동성애에 대한 언급도 요구된다.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을 위한 성교육의 목표는 김성애(2006:223)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른다, 둘째, 성적 발달과 변화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남녀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넷째, 사회의 성문제와 성도덕에 대한 비판 능력을 길러 준다, 다섯째, 사회와 문화 가운데서 적절한 성행동을 하도록 한다, 여섯째, 인간의 성적 발달과 특성은 개인차가 있음을 이해시킨다, 일곱째, 감정을 통제하고 성적 욕구를 승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준다.

그림책 『이상한 곳에 털이 났어요』(배빛 콜 글, 그림, 삼성당아이)는 아동의 이차 성징을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전과 다른 모습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이유를 상상을 가미한 ‘호르몬 아저씨, 호르몬 아줌마’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 코믹한 그림과 함께 상상력이 더해진 이야기는 쑥스러울 수도 있는 이차 성징에 대해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장점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려되는 부분이 더 많다. 모든 변화를 ‘호르몬’에 의한 것이므로 ‘당연하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은 총체적이고 관계적인 ‘나’에 대해 간과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변화일지라도 그 변화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올바른 대처 방안을 조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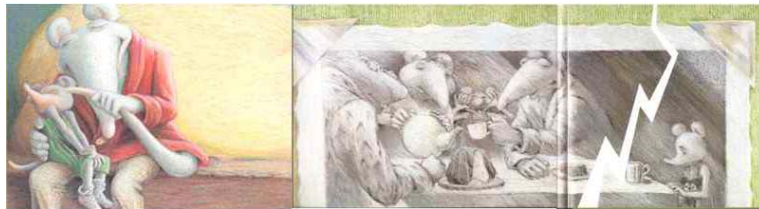
[그림 5] 여자 아이의 왕국

『여자 아이의 왕국』(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글, 그림, 창비)은 여자아이들의 초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 책의 경우에는 많은 상징성이 담겨 있어 간편하고 쉽게 지식을 얻기는 어렵겠지만 단순한 성 지식 보다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와 함께 여자아이의 성장이란 단순히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라는 작은 왕국을 지키고 다스리게 된 여왕이 되어가는 것임을 알려준다. 여왕이라는 자리가 때론 귀찮을 수도 있고 번거롭고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여왕으로서 나의 왕국을 소중하게 다스리고 품위를 지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해준다. 특히 이 책의 첫 장에는 여자아이의 부모님이 “공주야, 오늘 너는 여자가 된 거야.”라며 무언가 특별하게 안아주고 바라봐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흘리는 피에 대해 부정하거나 불결하다는 관념 아래 월경을 시작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해 있었다. 하지만 월경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섬세한 내 몸이 잘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땅에 충만하고 변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것이다. 따라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인 것이다. 초경을 하게 된 여자아이들을 위해 부모님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초경 감사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성교육의 하나가 될 것이다.

4) 성폭력

성경에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창세기 2:24)라며 성의 결합이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성의 결합은 구약성서에서 ‘안다’라는 동사로 지칭되어 완전하고 전적인 상호이해의 행위를 의미한다(김라경, 2000:81). 이러한 성의 결합은 출산과 쾌락 둘 다를 목적으로 한다. 근본적으로는 출산을 위한 것이나 합법적인 결합인 경우 성경에서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전도서 9:9),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잠언 5:18-19)와 같이 표현함으로 경시하고 금지하는 것이 아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성의 결합은 출산이 일차적인 의무였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평등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사용될 때만 선한 것이었고, 다른 성에 대해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욕망으로 하는 그 밖에 어떤 성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김라경, 2000:27, 박신경, 2009:254). 성경의 예로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의 타락으로 형벌을 받았으며(창세기 19:24), 근친상간을 하면 축출 당하기도 했다(신명기 23:3). 현대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물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소중한 성이 파괴되고 오용되면서 낙태, 강간, 매매춘등과 같은 성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김라경, 2000:10).

특히, 성폭력의 주 피해자는 연약하고 성범죄의 위협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부족한 아동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아동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성범죄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림책에서도 유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피해상황과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림 6] 가족 앨범

『가족앨범』(실비아 다이네르트·티네 크리그 글, 올리케 불안 그림, 사계절)은 동물인 쥐를 의인화하여 가족 내 성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 단비는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되고, 자신이 소중한 여기는 가족 앨범이 찢어질 수 있다는 삼촌의 협박으로 가족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회색 빛 그림에서 가족과 단절된 단비의 모습을 통해 외로이 상처 받고 있는 주인공의 심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삼촌은 고양이에게 잡혀가고, 단비는 가족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다. 이후 단비가 소중한 여기는 가족앨범의 삼촌사진은 엄마가 뜯어내고, 더 이상 볼일 수 없게 된다. 이 책은 자칫 충격적인 장면이 될 수 있는 성폭력 상황에서 성기를 꼬리로 대신하여 은유적 표현을 함으로 주 독자인 유아, 아동이 저항감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상처가 평생을 갈 수 밖에 없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심리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은 채 그저 가해자가 사라지는 것으로만 결말을 짓고 있다.



[그림 7] 슬픈 란돌린

『슬픈 란돌린』(카트린 마이어 글, 아네테 블라이 그림, 문학동네)에서도 한 집에 사는 아저씨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아파하는 소녀가 등장한다. 이 책에서는 『가족앨범』과 달리 사실적으로 성기를 묘사하며 성폭력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어른의 유희로 인형처럼 다루어지는 브리트에겐 진짜 인형인 란돌린은 “넌 아저씨 장난감이 아냐! 나쁜 비밀은 도움이 필요해.”라고 말하며 용기를 준다. 결국, 브리트는 이웃에 사는 아줌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더 이상 겁내지 않게 된다. 란돌린은 성폭력을 당한 브리트에겐 계속 누구도 그녀를 아프게 해서도, 껴안고 부벼서도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단지 장난감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면 안된다고만 제시하고 있어 인간 자체의 존재 가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상의 두 그림책은 성폭력의 본질적 원인인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인식에 대한 바른 방향과 가치관을 심어주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에게 상처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그림책을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래의 성의 가치와 바람직한 성인식과 성행위에 대해 확인하면서 근원적인 성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이성교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Stott, 1998:32).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은 타인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향한 충동과 그 관계를 표현하는 수단이며, 인간 공동체의 정립을 위한 수단이다. 한낱 개인의 욕망을 위한 소유물이 아닌 이성간의 관계에서 자기를 반영하면서 진의를 알게 하는 실체이다(홍병호, 2006:163).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때 돕는 배필이란 말은 히브리어 “도움”과 “합의”라는 두 단어에서 나온 것이다. 즉, 여자는 남자를 위해 돕는 자로 지음을 받아 남자의 부족한 점을 채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이성교제는 상대의 존재가치를 존중하고 대등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남녀 간의 바람직한 인간성을 창조하고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이성교제는 자아인식과 자기이해를 증진시켜 이성간에 서로 상호작용하고 자신을 성찰하여 자기 평가를 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따라서 이성교제는 기본적인 사회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자신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김성애, 2006:224).



[그림 8] 알왈이와 알미

『알왈이와 알미』(방정화 글, 그림, 베틀북)에서도 개와 고양이라는 상반된 캐릭터의 주인공이 만나 관계를 맺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 알왈이가 고양이인 알미네 이웃으로 이사 오면서 만나게 되고 서로 한 눈에 호감을 가지게 된다. 둘은 계속 자신의 머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이 떠오르며 서로의 생각만 하게 되고 결국 사귀는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알왈이와 알미는 교제를 하면서 서로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일을 더 열심히, 용기있게 한다. 이러한 모습은 이성교제의 건전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성에 대한 성적 끌림과 신체적 스킨십 등의 육체적 관계에 집중하기 보다는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책은 글과 그림을 통해 이성교제 때 느끼는 감정과 생각, 행동들을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알왈이와 알미는 서로에게 더욱 몰두하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지만, 기쁠 때 보여 지는 상반된 개와 고양이의 본능적 감정 표현방식으로 인해 오해를 하게 되고 결국 헤어지게 된다. 이후 서로를 그리워하다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둘은 해후하게 된다. 이때 그림에서 나타난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이성교제의 바람직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신의 꼬리를 상대방의 감정과 이해에 맞추어 조정함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 화합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림 전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성교제의 과정과 표현은 그림책을 접하는 아동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 아동의 신체적 성장 발달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초등학생들 간에도 이성교제는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교제라든가 연애 및 결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각자의 감정적 방식대로 관계를 맺게 된다. 즉, 신체적 매력으로 관계를 맺게 되고, 감정의 교환으로 자신의 사생활까지 공개하는 관계로 발전하며 이성간의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께안음, 애무, 신체적 키스 등의 신체적 접촉으로 이어져 감정 조절이 안돼 결국 강간, 성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노철우, 2010:122). 따라서 적절한 육체적인 규제와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성을 도구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목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귀한 존재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조문섭, 2001:4).

6) 동성애

동성애란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성적 매력과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성별, 피부색, 인종 혹은 계급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성적 기호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데즈먼드 투투의 주장처럼 오늘날 동성애는 정의 추구하고 인권보장을 앞세워 더 이상 범죄시 여기지 않게 되었다. 동성애자들은 기독교적으로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으며 동성애자체가 자

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즉,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를 만드셨다고 말하면서 성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그로 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Stott, 1998:56). 유럽을 시작으로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진행되면서 그림책에서도 다양한 동성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책이 등장하고 있다(그림 9).



[그림 9] 동성 결혼의 가정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책

국내에서는 직접적인 동성애를 드러내는 그림책은 아직 출간되지 않았지만 동물을 은유로 한 책이 한권 출간되었다. 「사랑해 너무나 너무나」(저스틴 리처드슨·피터 파넬 글, 헨리 콜 그림, 답푸스)에서는 동물원의 두 수컷 펭귄이 서로 사랑하며 가족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다. 같은 동성간에도 얼마든지 함께 하며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아기도 동물관리자에 의해 입양하게 된다. 알을 품어 새끼를 낳게 된 수컷 펭귄커플을 구경하던 관람객들은 “장하다!”라고 응원하였고, 세 마리의 펭귄 가족은 다른 가족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애정어린 모습을 보여주며 이 책의 이야기가 끝나게 된다. 전체적인 그림책 내용에서 동물이지만 동성가족이 가능하며, 다른 가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내내 말하고 있다. 오히려 입양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족을 이루게 되는 모습에 대해 관람객의 목소리를 통해 격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감상하는 어린 독자는 동성애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위기 18:22),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위기 20:13)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성경 곳곳에서는 모든 종류의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그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세기 2:18)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 아담에게 돕는 배필과 한 몸을 이루어 사랑을 완성하고 자녀들을 가지도록 하였다(Stott, 1998:32).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보완해 주는 존재로서 여자는 남자로부터 창조되었다 성경에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창세기 2:7)라고 표현된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상호 보완적인 성 기관은 더 깊은 영적 보완성을 육체적 차원으로 보여주는 상징에 불과하다(Stott, 1998:35). 따라서 동성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 로마서의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의 순리란 하나님이 세우신 사물의 자연스런 질서를 의미한다(Stott, 1998:46). 즉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립되는 인간의 행동이다.

원래 하나님은 이성애 성별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말씀하시며 당신이 제정하신 결혼은 이성애적 일부일처제로 정의하였다. 즉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며 공개적으로 인정받아야 하

며 영원히 봉인되어야 하고 육체적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그 외의 어떤 종류의 결혼이나 성관계를 성경에서는 구상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점차 많아지고 있는 동성애는 생물학적 성향과 문화적·도덕적 영향, 어린 시절의 환경과 경험, 개인의 반복된 선택으로 인한 강화 등의 조합의 단일 원인이 아닌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난다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Stott, 1998:75). 동성애 성향의 핵심에는 깊은 외로움, 상호적 사랑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갈증, 정체성의 추구, 완전함에 대한 갈망이 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는 이들을 ‘교회 가족’내에서 애정 어린 우정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기준을 지키려는 마음과 현재의 고통을 넘어 미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소망, 서로를 돌보고 지지할 수 있는 사랑을 통해 올바른 성 인식과 관계를 맺도록 치유해주고 보살피 줄 필요가 있다.

Ⅲ. 결론 및 제언

우리의 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선포한 우리 존재의 한 측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성과 여성으로의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의 성은 대치되거나 대체되거나 부정될 수 없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으로 인해 성의 뒤틀림은 시작되었다. 서로 보완해주기 위하여 지음받은 상호성은 경쟁으로 빛나갔다. 그러면서 성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기적으로 착취하는 인간의 무시무시한 능력이기도 하다(Grenz, 1990). 여성이기에 또는 남성이기에 차별하는 것, 세속적인 관점에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규정화하는 것, 특정성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즉 성은 타락의 영역이며 구속(창조)의 영역인 것이다.

남성다움, 여성다움 또는 동성애 등에 대해 그리스도인들도 매우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세속되고 왜곡된 성개념과 성행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판단과 정죄로 또다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려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그들이 돌이켜 돌아올 공동체를 만들어주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1960년대 이후의 성혁명으로 시작된 주제 중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장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 정직성(Sexual honesty)이다. 누구나 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정직성은 성이 인간의 삶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교만하지 않은 자세로 참을성있게 논의하려는 마음가짐을 뜻한다(Mouw, 1992). 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그림책이란 매체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되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왜곡된 성의 양태를 직시하고,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 상호의존의 가장 좋은 것들을 문학을 통해 경험하며 도전받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1999). “학교 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성교육 기본 계획.” 서울:교육부
- 김라경 (2000). “아동을 위한 기독교적 성교육의 한 모형.”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성애 (2006). 기독교 아동 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진리논단』, 13권.
- 김지영 (2004). “영동 북부지역 유아교육기관의 성교육 실태조사.” 석사학위논문. 강릉대학교.
- 김현실 (2010). “유아성교육 그림책 활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태.”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노철우 (2010). 청소년의 성 정체성 문제와 기독교상담방안. 『성결심리상담』, 2권.
- 박신경 (2009). 유아기를 위한 기독교적 성교육. 『신학과 목회』, 32권.
- 손선옥 (2002). “유아 성교육 활동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신은영 (2009). “유아성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및 실시현황.”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조문섭 (2001). 교회에서의 이성교제는? 『N세대교회교육』. 제577호.
- 현은자, 강은진, 변윤희, 심향분 (2004) 『그림책의 그림읽기』 서울:마루별
- 현은자, 유정아, 김은정, 최형선, 박현경, 박인선 (2003). 유아의 성역할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기독교유아 교육학회 2003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홍병호 (2006). 기독교 성 윤리. 『기독교철학』, 제2호.
- Anderson, A. (Ed.) (1996). *Men, Women, and Authority: Serving Together in the Church*. 이은순 역 (1999). 남성과 여성.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Baker, W. (1991). *In the Image of God*. 김성웅 역 (1994). 인간: 하나님의 형상. 서울: 생명의말씀사.
- Egan, S. K. & Perry, D. G. (2001). Gender identity: A multidimensional analysis with implications for psychosoci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7, 451-463
- Grenz, S. J. (1990). *Sexual Ethics: An Evangelical Perspective* 남정우 역 (2003). 성 윤리학: 기독교적 관점, 서울:살림
- _____ (1994). *The Theology for the community of God*. 신옥수 역 (2003). 조직신학: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신학, 고양:크리스찬다이제스트
- Jewett & Shuster, (1991) *God, Creation, and Revelation: A Neo-Evangelical Theology* Grand Rapids:Eerdmans,
- Leeuwen, M. (1990). *Gender & Grace: Love, Work & Parenting in a Changing World*. 윤귀남 역 (1999), 신앙의 눈으로 본 남성과 여성, 서울: IVP.
- McClintock, M. K., & Herdt, G. (1996). Rethinking Puberty: The development of Sexual attrac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5, 178-183
- Mouw, R. (1992). *Uncommon Decency*. 홍병룡 역 (2004). 무례한 기독교. 서울: IVP.
- Niles, J. D. (1999). *Homo Narrans: The Poetics and Anthropology of Oral Literatur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Piper, J. (1990). *What's the Difference?*, 송용자 역 (2005). 남자와 여자, 무엇이 다른가?. 서울: 부흥과개혁사.
- Ryken, L. (1985). *Windows to the world: Literature in Christian Perspective*. 권연경 역 (1991). 기독교와 문학 : 세계를 바라보는 창,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Slaby, R. G., & Frey, K. S (1975). Development of gender constancy and selective attention to same-sex models. *Child development*, 46, 849-856
- Sproul, R. (1993). *The Hunger for Singnificace* 이숙희 역 (1993). 사람이 무엇이관대. 서울: 조이선교회.
- Stott, J. (1998). *Same-Sex Partnerships?*. 양혜원 역 (2006). 존 스토티의 동성애 논쟁. 서울: 흥성사.
- _____ (1999). *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정옥배 역 (2011).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 Volf, M. (1996). *Exclusion and Embrace*. 강영안 역 (2012). 배제와 포용. 서울: IVP.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561124> (검색일 2012년 10월 1일) 매일경제 2012. 9. 3 일자, "초등생 음란물 접촉, 성가치관 왜곡"

그림책 목록

- 강무홍 글, 한수임 그림, 『까만 나라 노란 추장』 (2001), 웅진주니어
- 방정화 글, 그림, 『왈왈이와 알미』 (2003), 배틀북.
- 이호백 글, 이억배 그림, 『세상에서 제일 힘 센 수탉』 (1997), 재미마주.
- 이상교 글, 한성옥 그림, 『수염 할아버지』 (2001), 보림.
- 채인선 글, 안은진 그림, 『나는 나의 주인』 (2010), 토토북.

- Written and Illustrated by Barbara Cooney, *Miss Rumphius* (1982), 우미경 역 (1996), 『미스 럼피우스』, 시공주니어
- Written and Illustrated by Babette Cole, *Hair in Funny Places* (1999), 최성희 역 (2008), 『이상한 곳에 털이 났어요』, 삼성당아이.
- Written by Bart Moeyaert and illustrated by Wolf Erlbruch Amsterdam, De Schepping (2003), 임정은 역 (2006),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마루별
- Written by Carole Boston Weatherford and illustrated by Kadir Nelso, *MOSES: When Harriet Tubman Led her People to Freedom* (2006), 김서정 역 (2007), 『모세: 세상을 바꾼 용감한 여성 해리엇 터브먼』, 달리.
- Written by Charlotte Zolotow, Illustrated by William Pene du Bois, *William's Doll* (1985), 이은화 역 (1999), 『윌리엄의 인형』, 다음세대.
- Written and Illustrated by Iwona Chmielewska, *A Girl's Own Kingdom* (2011), 이지원 역 (2011), 『여자 아이의 왕국』, 창비.
- Written by Justin Richardson & Peter Parnell, Illustrated by Henry Cole, *And Tango Makes Three* (2005), 강이경 역 (2012), 『사랑해 너무나 너무나』, 답푸스.
- Written by Katrin Lauer, Illustrated by Anette Bley, *Das kummervolle Kuscheltier* (1996), 허수경 역 (2003), 『슬픈 란돌린』, 문학동네.
- Written by Linda Walvoord Girard, Illustrated by Rodney Pate, *My Body Is Private* (1984), 권수현 역 (2007), 『내 몸은 나의 것』, 문학동네.
- Written by Mary Hoffman, Illustrated by Caroline Binch, *Amazing Grace* (1991), 최순희 역 (2005), 『그레이트 이스는 놀라워』, 시공주니어.
- Written by Shirin Yim Bridges, Illustrated by Sophie Blackall, *Ruby's Wish* (2002), 이미영 역 (2004), 『루비의 소원』, 비룡소
- .Written by Sylvia Deniert & Tine Krieg, Illustrated by Ulrike Boljahn, *Das Familienalbum* (1993), 엄혜숙 역 (2003). 『가족앨범』, 사계절.
- Written by Thierry Lenain, Illustrated by Stephane Poulin, *Petit zizi* (1997), 김영신 역 (2004), 『고추가 작아요』, 문학수첩리틀북스.
- Written and Illustrated by Tomie De Paola, *Oliver Button Is a Sissy* (1979), 이상희 역 (2005), 『올리버 버튼은 계집애래요』, 문학과 지성사.
- Written and Illustrated by Yumiko Fukuzawa(ふくざわ ゆみこ), *ふゆじたくのおみせ*, 엄기원 역 (2004), 『친구에게 주는 선물』, 한림출판사.